



열세번째 이야기

말씀의 통로가 되어

[22-1 FTS 후기]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오랜 기간 썬데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다가 개인적으로 힘든 2011년에 BEE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그리고 중국 리장아 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제 삶에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 수 있는 대전환을 경험하였습니다. 수료 후에도 매년 꾸준히 BEE 세미나를 수강하면서 말씀을 가까이하고자 노력했고, 주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직장과 교회에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감사와 은혜로 시작한 일들에 나의 열심과 의가 더해지면서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나를 먼저 내세우게 되었고, 감사와 사랑이 없어지면서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직장에서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때마침 FTS에 참여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잠시의 고민도 없이 10년 전 BEE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싶은 마음에 FTS를 신청했습니다. 짧은 한 달간의 과정을 통해 당시 갈라디아인들이 처한 위기가 지금 저의 상황과 동일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의 배교에 대해 처음에는 어떻게

흔들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이내 그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단련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한 일들도 언제든지 육체로, 율법으로 변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는 자신이 전한 복음만 옳다고 고집하는 바울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FTS를 통해 당시 상황의 급박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음을 염려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과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존심과 명예, 권위만을 내세우려 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FTS를 마친 지금도 여전히 왜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의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지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이제는 저의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신앙에 관해서는 늘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그리고 제 삶이 크리스천으로서 모범이 되는 삶이 아님을 알기에 인도자로서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없이 부족한 저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한 달간 부족한 저희를 이끌어 주신 인도자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귀한

경험을 함께한 집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글쓴이 김지혜 권사]



2011년 BEE 과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였다. 현재 온누리 교회 권사로 파워 웨이브를 섬기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도예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월 21일 지원부터 4월 21일 간증문 작성까지 2달간의 FTS 여정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의 섭리에 놀라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많은 저에게 FTS는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 공동체, 기도가 필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한 귀한 훈련이었습니다. FTS 중 잘해야 한다는 걱정과 못하는 현실 사이에서 불면증이 발생하고 심신의 피로로 직장 일과 세미나 준비에 집중하지 못했고, 인도자 실습을 해야 하는 주간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그날 QT 말씀으로 버티게 하였고,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 겪는 절대적 고난 앞에서 들리는 세밀한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은 주님의 사랑과 고난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30년의 직장생활로 두려운 상황에 많이 단련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나의 실체를 직면하고 '진짜 나는 안되는구나'라고 혼자 자책하며 우울 모드로 근무하는데 70대 중반의 내시경 수검자가 내시경검사가 너무 두렵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70대 중반 어르신이 내시경검사 과정과 결과가 두렵다면 두려움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며 두려운 상황도 저마다 다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14:27) 속에 '평안을 은진이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은진이에게 주노라. 내가 은진이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은진이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4번씩이나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타게 말씀하셨는데 그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처럼 나의 열심을 앞세워 준비하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게 하지 못하는 많은 근심거리를 회개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열심이 나를 키우고 열매 맺게 한다는 확실한 믿음은 소망을 품게 하였고 말씀을 사랑하는 인도자로 세워져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불면증과 근심 가운데 거하게 하셨군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였군요. 아버지만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크게 외치며 경배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 덕분에 저에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을 통해 저에게 복음으로 전해지게 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의 약함이 아버지의 강함으로, 나의 무지가 아버지의 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에 나의 연약함, 무지함, 실패에도 낙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 울며 말씀을 사랑합니다. 아빠 아버지와 기쁨을 나눕니다.

저에게 BEE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실제로 만나고 배우는 곳입니다. FTS를 통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반상섭 집사님, 장안녀 권사님, 장영호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훈련받은 전강춘 권사님, 김기범 집사님께도 함께 여서 수료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FTS를 지원하고 수료까지 주님과 사귀어 초대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글쓴이 박은진 집사]



사랑부 김종영 목사님 권유로 2018년 BEE 세미나에 참여 후 말씀과 세미나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좋아 지속적으로 BEE 세미나를 수강하고 있다. 현재 온누리 교회 안수 집사로 사랑부를 섬기고 있다.

[정리 및 편집 최선]

그림 속 His-story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 빈치, 1495-1498, 벽화 880 x 700,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i ser Piero da Vinci, 1452~1519)가 그의 후원자 루도비코 공의 요청에 의해 그린 그림으로 1980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예수님이 수난당하기 전날(유월절)인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의 만찬 풍경(마26, 눅22, 요13, 고전11)을 그린 것이다. 몇 안 되는 완성작 중의 하나지만 수차례 파괴되고 손상되어 복원을 거쳤다. 10년간의 연구와 치밀한 준비를 거쳐 3년 만에 완성한 그림으로 원근법에 따라 그리스도의 머리 부분에 화면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시각상의 중심점이 예수님께 있다. 제자들은 세 사람씩 네 무리로 나뉘었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요13:21).’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다양한 반응하는 모습 속에서 평온한 예수의 모습과 이와 상반된 제자들의 심한 동요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그림 속 유다는 오른손에 돈주머니를 쥐고 있고, 왼손을 뻗어 소금통을 잡으려다 쓰러뜨리는 모습으로 표현하여 왼손 잡이로 표현되는 두려움과 의심, 쏟아진 소금통의 불길함 등 인물의 다양한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

BEE 소식

1. 2022년 “일상을 넘어 쫓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하합니다.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2. 조문상 선교사님과 루체팀이 졸업식과 컨퍼런스(5월 27일-6월 3일)를 위해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로 떠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요!

